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제2절 경제과학 행정

제3절 관광문화 행정

제4절 복지여성 행정

제5절 농림 행정

제6절 해양수산환경 행정

제7절 건설교통 행정

제8절 F1 행정

제9절 소방 행정

제10절 일반 행정

제 1 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의 활력적 추진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의 활력적 추진

1-1. 투자유치 가속화 및 전략적 기업유치

가. 투자유치 총력추진

2009년은 「기업 1,000개 유치」 시책이 본격화되어 큰 성과를 거둔 해였다. 도청과 시·군의 전 공무원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442개 기업, 3조 5천 772억원을 유치하고 1만 5천 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수도권기업 유치실적이 53개로 크게 증가(전년 대비 5.9배)하여 전남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道 및 시·군 투자유치 총력추진 결의대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광주·전남 대학총장 간담회 개최, 그리고 289개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기업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민관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기업관리담당 김범수,
제조업유치담당 정상동, 서비스업유치담당 주상욱,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이행권, 최근영

나.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자문 협력

(1)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위원장 행정부지사) 회의를 6회 개최하였다. 4월에 투자유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안 심의를 5월, 7월, 9월에는 각각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안을

서면심의 하였으며, 11월에는 2010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관리 계획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심의하였다.

(2) 투자유치 전문위원회 운영

투자유치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발굴·제안을 위해 구성된 전남정책위원회의 투자유치전문위원회(위원장 박성수 교수)를 2회 개최하였다.

(3)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 68명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정기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활동적인 투자유치 자문관들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4) 투자유치보좌관 운영

경제전문가인 민간기업의 중견간부를 「투자유치보좌관」으로 위촉(금융감독원 1명, 삼성전자 1명)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전략 및 경영마인드를 공식사회에 파급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기업 투자정보 수집, 금융(PF) 지원,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투자유치비상대책실무협의회 운영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투자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타개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 실무전문가 18명으로 투자유치 비상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PF참여, 전남 조선타운 조성사업,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6개 분야의 안전에 대해 협의하였다.

(6) 투자기업공동지원협의회 구성 및 합동상담회 개최

전남에 투자를 결정한 투자협약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조기 투자실현을 위해 2009. 6월 전국 최초로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분기별 투자기업 합동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동지원협의회는 지역금융권인 광주은행, 농협, 기업·산업·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전라남도교육청 및 용역지원단체인 전남건축사협회 등 15개 기관단체 1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업들이 투자실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금융여신 지원과 신용보증, 업체들이 필요한 우수기능인력 알선, 각종 정책자금 안내, 건축 법무 부동산 등 각종 용역사항을 지원한다.

道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공동지원협의회 위원과 투자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투자기업 합동상담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6월 제1차 상담회에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35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123건(금융지원 44, 신용보증 29, 정책자금 9, 고용인력 19, 용역수수료 지원 22)을 상담 지원하였으며, 2009년 11월 제2차 합동상담회는 33개 기업이 참여하여 112건(금융지원 46, 신용보증 15, 정책자금 15, 고용지원 8, 수수료 등 용역지원 28)을 상담 지원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기업관리담당 김범수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정권수, 김판길

다. 투자유치 업무능력 배양

道산하 전공무원의 투자유치 요원화로 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투자유치 전문교육과정 운영(3과정 180명)과 실·국원 공무원 대상 경제관련 포럼을 2회 개최하였다. 또한, 실·

국원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군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 투자상담 기법 및 인센티브제도 교육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인적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등 투자유치 워크숍을 3회 개최하였다. 특히 투자유치 전담부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경제신문사(한경아카데미)의 '건설부동산프로젝트매니저 과정'에 도·시군 투자유치공무원 42명을 위탁하여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기업관리담당 김범수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김판길

라. 투자유치 보조금 및 기반시설비 지원

수도권, 영남권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84개기업(개소) 22,094백만원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부보조금으로는 수도권이전기업 4개기업 5,417백만원, 창업투자 33개기업 8,570백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0개기업 2,17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투자기업이 입주하는데 애로를 해결하여 투자유인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1개소 5,115백만원, 입지 및 시설보조금에 6개기업 816백만원을 지원하여 투자촉진을 기하고 있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기업관리담당 김범수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정권수

마.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1)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전남에 대한 일반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유망업종, 투자유치 전략

산업별 동영상, PPT, 브로슈어 등 23종의 홍보물을 신규 제작하거나 기존에 제작된 각종 홍보물을 Up-Grade하여 각종 투자 설명회 및 투자상담을 위한 타겟기업 방문시 활용하였다.

아울러, 홍보효과가 큰 TV광고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한 전남의 투자환경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비교우위의 자연자원·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사업·투자여건 등 전남이 투자적지임을 국내외에 공격적으로 집중 홍보하였다.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광고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였으며, 2009. 10월부터 2009. 12월까지(1일 1회) 진행된 TV 광고와 2009. 11월부터 2010. 2월까지(월 1,272회) 아리랑TV 등 외국송신 TV광고를 추진하였으며, 주요일간지 신문광고 및 케이블 TV 광고를 병행하였다.

(2)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투자 설명회

2009. 7. 1. 서울 COEX에서 16개 광역시·도,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VIP를 비롯한 관계부처, 경제단체, 지자체 및 주요 기업인 등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규모 투자설명회 및 5GW 풍력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특히, 道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총 18개기업에 달하며, MOU 체결은 13건에 1조 9,271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전국 실적대비 1위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道가 설치 운영한 전시·상담부스에는 연인원 천여명이 방문했고 그중 60여명의 기업인과 투자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30개사의 투자의향 기업을 발굴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기업관리담당 김범수,
담당자 조영식, 박석현, 김영주

바. 5GW 풍력프로젝트 사업 추진

2008.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및 2009. 5월 5+2(호남)광역경제권 개발전략 발표에 따른 서남해안 풍력사업 허브구축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에서 서남해안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토대로 대규모(5GW) 내수시장 창출 프로젝트로 기획추진하게 되었다. 풍력프로젝트는 전남 서남부 도서·해안·해상지역에 5GW 발전단지화 2,314천㎡(70만평)의 설비전용산단 및 R&D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는 고용 25천명, 연간지방세수 641억원, CDM 2천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0. 3월까지 2차 투자협약을 체결한 결과 총 37개기업, 18조 5천억원, 발전사업 6.7GW가 신청되었으며 향후 전국적인 해상풍력의 메카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투자정책국 투자개발과장 박창훈, 중북부권담당 박현창
담당자 서병술, 심정식

사.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구체화 실현

대상 지역이 목포·무안·신안 및 영암·해남·진도 일부지역에 이르는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시행이 2008. 9월에 확정됨에 따라 2008. 12월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마치고 서남권 신발전종합계획 및 종합발전구역 지정고시가 12월 말에 확정되었다.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기반조성('08~'10) ⇒ 투자유인('11~'15) ⇒ 투자활성화('16~'20)으로 추진 될

예정이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서남권 신발전 지역에 2020년 인구 60만명 규모의 자족형 중핵도시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투자정책국 투자개발과장 박창훈, 개발정책담당 조재윤,
담당자 김동진, 조형근

아. 전남조선타운 조성사업

신안군 압해면과 고흥군 도양읍 일원에 총 면적 1,611만㎡, 투자비 2조 5,271억원 규모의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20여개 투자참여 업체와 투자협약을 실현하였고, 2008년에는 신안과 고흥에 개발사업 추진 전담 법인(SPC)이 설립되었으며, 2008년 9월 고흥과 2009년 8월 신안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았다. 향후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 착수 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직접고용 4만명과 생산유발 8조 2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정책국 투자개발과장 박창훈, 조선타운담당 김정선
담당자 박성우, 이병석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2-1. 전략적인 투자유치 추진

민선 3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발굴한 투자유치 대상 기업의 투자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사후관리 전담자(PM)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다. 또한 기업유치 T/F 구성 및 잠재 타깃기업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유치전략을 마련 전방위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9년도 298개 기업에 22조 8,815억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 소규모 투자설명회 및 개별IR 등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289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22조 1,97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외투기업 유치에서는 해외투자설명회 및 국내 초청 현장설명회로 9개 기업과 MOU를 체결 6,84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특히 수도권기업 유치의 불모지였던 우리 도가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원자재 활용 기업을 타깃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34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유치의 새로운 가능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녹색성장산업의 최적의 투자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63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입지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2-2. 국내 투자유치 활동 전개

열악한 도내 산업구조의 고도·계열화를 위해 핵심전략산업을 분야별로 집중 유치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였다.

가.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유치

특수조선 및 기자재, 해양레저조선 및 장비업체 등 조선산업관련 8개기업(SH중공업 등)과 4,7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조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친환경 농수산물식품기업 유치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의 중심지로서 친환경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친환경 방제관련 기자재기업, 기능성 식품 및 의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34개 기업(세정F&B 등)과 3,100억원의 MOU를 체결하였다.

다. 전자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유치

우리도의 미래성장산업인 전기전자, 부품소재, 신소재산업 등 관련 기업 59개(탑알앤디 등) 7,200억원을 유치하여 산업구조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였다.

라. 친환경 녹색산업 유치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최적의 투자환경을 활용한 투자유치에 전념하여 신재생에너지기업 37개사(95,000억원), 우드펠릿 연소기기업체 6개(720억원), 친환경 바이오기업 19개사(2,500억원)를 유치미래 녹색성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 수도권기업 등 대기업 투자유치

전남의 비교우위자원을 활용한 수도권 기업 34개(3,100억원)를 유치하여 수도권기업 유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이전에 따른 협력업체 17개사를 집단화 이전하는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바. 컨택센터 투자유치

IT 기술을 수반하는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여성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 2009년 4월 한국컨택센터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스태프 등 3개 업체를 타겟기업으로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업유치과 과장 김채홍, 기업관리담당 김범수,
제조업유치담당 정상동, 서비스업유치담당 주상욱
담당자 조영식, 이행권, 최근영, 장수훈

2-3.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

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중국 MOU 기업 등 방문 투자유치활동

2009. 3. 9~3. 13까지 중국 MOU체결 기업을 방문하여 섬·해안개발, 한중산단 등에 대한 투자 아이템 구체화, 초청투어 등을 협의하고 잠재 투자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중국지역 방문 투자상담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국 순방기간 동안 2008년 11월에 MOU를 체결한 상하이 수목청 실업 등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활동을 펼치며 섬·해안개발, 한중산단 등에 대한 투자아이템 구체화로 조기투자 유도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상하이 중방치업고분유한공사 등 신규 타겟기업 5개사 발굴하여 무안기업도시 등 우리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상담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 참가 및 유럽 지역 투자유치활동

2009. 4. 18~4. 25까지 해외 기계산업 관련 기업 및 자본가 투자유치 일환으로,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 및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잠재 투자기업 발굴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하노버박람회 참가기간 동안 세계 주요 풍력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도 투자여건 및 풍력산업 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고, 11개의 풍력기업과는 1:1 투자상담 활동을 하였다.

한편,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화훼기업인 Bloom사, 신재생에너지 기업 Solland Solar 등 4개의 네덜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투자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투자유치 활동 및 여수엑스포 홍보를 위한 도지사 일본순방

2009. 6. 16~6. 19까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여수엑스포 홍보를 위해 일본지역을 순방하여 투자협약 2건, 업무협약 체결 3건, 잠재 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상담 3건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순방기간 동안 유화연료기업인 올리브 TV와 1, 2단계에 걸쳐 1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축산용 환경개선제품 생산업체인 인텔링크사와 사업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투자확대를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JTB 여행사와 관광객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일한국식품협회와 도내 농수산물 수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주)토센보사와는 전복 1,000만불 수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도 항공사, 조선사 및 천일염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상담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일본국 경제산업성 대신, 부대신 및 중의원을 면담하여 무안~오사카간 항로 개설지원 요청 및 우리도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여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다수의 일본인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약속을 이끌어 냈다.

라. 호주지역 요트 및 마리나 유치 방문 투자유치 활동

2009. 6. 22~6. 28까지 요트 및 마리나 기업 유치를 위해 호주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요트기업 7개사, 마리나 개발 전문기업 4개사, 병원 4개사 등 총 15개 호주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도 투자여건 및 관련산업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마. 2009년 홍콩부동산박람회 참가 및 광저우 투자유치 활동

2009. 11. 16~11. 20까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여 개별 투자상담 2건, 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도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홍콩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전남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투자 상담활동을 펼쳤다.

장흥집단유한공사 등 광저우 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진행한 결과 우리도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섬 개발, 무안기업 도시 투자에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향후 현지시찰을 위해 우리도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33개 기업에는 우리도 소개 및 주요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만찬간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홍콩부동산박람회에는 우리도 부스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에 대한 총괄적인 소개와 F1 대회, 여수엑스포 등 국제 이벤트, 우리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하북 천산실업 등 125개 기업이 부스를 방문하여 투자상담을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UBS Global 자산관리유한공사와 서남해안관광도시에 대한 상담을 가졌다.

바. 독일 튀링엔주 경제단체 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

2009. 11. 24~12. 2일까지 경제단체 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

하여 독일, 덴마크 지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독일 에르푸르트 상공회의소와의 교류를 위한 연력사무소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튀링겐주경제개발공사, 태양광능력개발센터 등 4개의 경제단체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태양광 관련기업인 Wacker Schott Solar, Bosch solar Energy AG 등 4개의 기업을 방문하여 기술이전 및 향후 투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태양광을 이용하여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제로에너지하우스와 2001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풍력단지 미델그룬덴 지역을 방문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외자유치1담당 안기홍,
외자유치2담당 선경일, 담당자 이광동, 서명섭, 명수진

2-4.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도내에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는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도내에 투자하고 있는 72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를 포함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회사별로 PM을 지정, 분기별 1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언하거나 관련 부서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외자유치1담당 안기홍,
외자유치2담당 선경일, 담당자 이광동, 서명섭, 명수진

2-5.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K(KOTRA)의 On-Line을 활용한 우리 도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제공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온라인망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정보 수집과 통상, 교류 활성화 위해 중국 상해와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에 “전라남도 해외 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해외 투자유치 및 통상 교류활동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투자정보 입수 및 교환을 통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장 김채홍, 외자유치1담당 안기홍,
외자유치2담당 선경일, 담당자 이광동, 서명섭, 명수진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3-1.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사업 본격 시행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여건 및 추진상황

연평균 15℃의 온화한 해양성기후와 인근 1,965개의 아름다운 섬, 6,419km에 이르는 세계적인 리아스식 해안선,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와의 최근거리 등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은 2005년 8월 25일 정부로부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12월 삼호·구성·초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008년에는 공청회, 중앙 관계부처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초송지구는 간척지를 기업도시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8년 12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비서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초송지구 사업시행사가 부동지구로 옮겨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키로 협의함에 따라 부동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재수립한 후 2009년 6월 3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하였다.

삼호·구성 등 2개 지구는 3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09년 2월 19일자로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 후 삼호지구 450억원, 구성지구 900억원의 법정자본금을 모두 확보하고 기업도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삼호지구는 2009년 10월 8일에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구성지구는 2009년 12월 30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2010년 1월초에 승인 고시될 예정이다.

나. 개발 예정지내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예정지는 전체면적 84.45km² 중 간척지 부분이 79.3km²가 포함되어 있다. 삼호지구(8.98km²)와 구성지구(16.8km²) 간척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업도시개발부지 활용에 동의하여 2009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삼호지구는 2009년 10월 8일자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되어 2009년 12월 8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하였다.

또한 구성지구도 2009년 12월 30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2010년 1월초에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곧바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부동지구는 2009년 6월 3일자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14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와 간척지를 기업도시부지로 활용하는 데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장 박은호,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강성운, 이금하, 정병현

3-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시행전담법인(SPC) 설립추진

가.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된 델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2006년 10월 투자유치 컨설팅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가능기업을 파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Man To Man식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2월 14일 미국계 기업 가이드 코리아와 2,000억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You & Partners, 유토라이프, 미국 GDP, 사우디

FAL그룹, SPG사, 블루넷/월드라이트, 건원그룹, Lippo 그룹, 호주 Village Roadshow사 등을 상대로 중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말에 부동산사업자인 대한도시개발의 유동성 위기로 송천지구(15.5km²)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GS건설, 삼부토건, 한백R&C, 엘드건설, 시공테크, 서천건설, 래영건설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와 통신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TrussNet 그룹 정보를 파악한 후 코린타이 회장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 2008년 7월 4일 총투자금액 45억달러에 이르는 투자계약을 체결, 2009년 9월 3일 개발전담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증액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 1일에는 건원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중국 및 동남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하여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등과 투자상담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지역투자박람회, 2009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관광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유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는 2009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된 세계부동산 박람회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홍콩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글로벌 기업 및 금융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사업을 알리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나. 전담법인별 자본금 확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5개 전담법인이 5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

게 된다. 5개 전담법인이 개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거 도시조성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2009년말 기준으로 서남해안관광레저(주)는 450억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900억원, 썬카운티(주) 150억원, KAVO는 6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였다.

다. 탄소제로도시 건설 추진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도의 역점 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08년 3월 20일 도와,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목포대학교, 에너지관리공단, 7개 사업시행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무안기업도시 탄소제로도시 구현을 위한 **산·학·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 체결 이후, 도에서는 목포대학교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각 지구 및 건물 등에 대한 탄소발생량과 탄소절감 목표치, 탄소제로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 구체적 『전략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008.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2009년 7월 『관광레저도시 시설 매뉴얼』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전략마련 컨설팅』 내용과 『관광레저도시 도입 시설 매뉴얼』을 바탕으로 兩 기업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장 박은호,
개발계획담당 김희원, 보상지원담당 김태일,
담당자 조병섭, 나영수, 서영배, 박우주, 정 석

3-3.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자족적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경련컨소시엄과 전남 개발공사에서 2006년 2월부터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약 100km²의 면적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수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왔다.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개발구상(안)을 가지고 2007년 1월에 해남군 산이면사무소와 영암군 삼호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개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2007년 9월까지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한도시개발(주), 썬카운티(주), KAVO(주) 등 5개의 법인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전담법인(SPC)별 개발구역과 면적(총면적 87.92km²)을 확정하고, 해외 용역사가 기 계획한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SPC에서 구상하고 있는 관광레저시설들을 접목시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왔으며, 개발계획이 완료된 삼호지구와 구성지구는 2007년 12월 26일에 삼포·부동지구는 2009년 3월 5일 및 6월 3일 각각 <표 2-1>과 같이 해당 SPC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문화관광부에 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 2-1> 개발구역지정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내역

지구별	개발면적 (km ²)	계획인구 (명)	도시조성비 (억원)	시행자(SPC)	승인신청일
삼호	9.20	10,000	4,996	서남해안레저(주)	'07.12.26
구성	21.87	18,300	8,953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07.12.26
부동	14.2	10,000	4,947	썬카운티(주)	'09. 6. 3
삼포	4.3	10,620	4,025	KAVO(주)	'09. 3. 4

서남해안레저(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호지구는 The Care City(건강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허브단지, 에너지 체험시설, 영상휴양 단지, 테라피센터, 바이오 R&D단지, 골프장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성지구는 The Refresh Green City(녹색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테마파크, 월드푸드빌리지, 남도음식문화촌, 박물관, 바이오에너지파크, 시네마타운, 메디컬센터, 골프장 등을 개발하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등 골프장 운영 전문업체로 구성된 썬카운티(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지구는 The First Sun Lake City(호반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워터파크, 마리나클럽, 승마클럽, Wellness Resort, 테마박물관, 친환경 R&D연구센터, 아시아PGA본부, 골프장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4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공청회 및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중앙부처 협의를 실시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간척지 협의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당초 2008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남도에서는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간척지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결국 전남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BH 회의에서 삼호·구성지구를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도시개발(주)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부동산지구는 SPC의 주 참여회사인 대주건설이 신용도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간척지를 기업도시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부동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초송지구의 SPC인 썬카운티(주)가 부동산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삼호·구성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8일과 2010년 1월중에 각각 개발계획 승인

이 되었거나 될 예정이며 2010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여 2010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삼포·부동지구는 2010년 7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성 검토 실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계획단계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 모색 및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2006년 6월 착수하여 2007년 3월 준공하였다.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는 2007년 11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안 설정 및 초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먼저 2008년 8월 19일 삼호, 구성, 초성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2개 지구(삼호, 구성)는 2009년 11월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부동지구는 2009년 4월 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 상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2009년 10월 1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 차단 추진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전남도에서 1차로 해남군 산이면 전 지역과 화원면 청룡·금평·영호·성산리 지역 105.86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차로 국토해양부에

서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예정 인근 지역인 해남군 해남읍, 화산·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면 일원 457.65km²와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면 189.1km²까지 2차로 확대 지정하여 총면적 708.77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없고, 지가 또한 안정적으로 조사되어 10회에 걸쳐 해제를 건의한 결과 2009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영암, 해남군 일원 646.75km²를 해제하였으며, 2009년 5월 4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중 개발 예정지 및 주변을 제외한 해남군 11개 법정리 62.02km²를 해제하였다.

또한 기업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불법토지형질변경, 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남군과 영암군에서는 1차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기업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으나, 개발계획 미승인 등으로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을 연장(2차) 고시하여 월1회 이상 도, 해남군, 영암군이 합동으로 위법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거주하여 온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영농경작행위 등은 해당 군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도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장 박은호,
개발계획담당 김희원, 보상지원담당 김태일
담당자 조병섭, 나영수, 서영배, 박우주, 정 석

3-4. 앞으로 추진방향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삼호·구성지구에 대해서는 2010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신청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1단계 공

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아직 개발계획 승인 신청 중인 부동·삼포 지구에 대해서도 2010년 7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0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까지 수립,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도시기반공사 착공은 2010년 말에는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5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전남은 동아시아 최대의 관광레저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서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